

전북 미래기술혁신 센터 성과교류회

전북도·효성·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 기업 성과전시·우수사례 발표·지원방향 공유 등 진행

전북도와 (주)효성,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5일 전북 미래기술혁신 센터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기술혁신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내 신생 기술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특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창업 민·관 협력 프로젝트이다. (주)효성이 전용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정책 모델을 기획해 올해 6월 문을 열었다. 미래기술혁신센터에는 3개의 중점사업이 불을 밝히며 연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전북 미래산업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약 10억원 규모 5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 자체 사업인 '금융혁신 벤처 창업 지원사업'에 10개사, 5억여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에 5억원 규모에 6개사가 뛰어들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래기술혁신센터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전문프로그램과 전북센터 자체 사업, 주요 파트너 연계 등을 통해 신규고용 71명, 매출 약 23억원, 투자유치 29억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성과교류회에는 이들 기업의 성과전시와 6개 팀의 우수사례 발표, 다음연도 지원방향 공유 및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수소연료전지분야 창업기업인 ▲테라리스 주식회사(대표, 김태영)는 무인항공기(드론)와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술특허 13건을 출원하고, 매출 2억원, 투자유치 약 6억원을 달성해 수소 시대 도래에 맞춰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탄소소재 창업기업인 ▲(주)더카본스

튜디오(대표, 김기민)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신재생에너지 디바이스용 핵심 탄소소재를 개발해 총 24억원의 투자를 유치, 다음연도 양산을 위한 기초 단계에 돌입했다. 이 외에도 ▲코코넛사일로(주)(대표, 김승용)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투자를 통해 베트남 화물 중개플랫폼을 개발, 현지 사무소 구축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AI기반 창업기업 ▲(주)데너이(대표, 송연의)는 치과 보건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딥러닝(Deep-Learning) 기반 치아 진단케어 시스템과 자가진단 스마트 칩솔을 개발했으며, 스마트 치아분석 앱 '치아'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정읍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반려동물 푸드를 제

작하는 ▲더올하이(대표, 최청원)가 다양한 종류의 초식성 동물용 건조 푸드를 개발, 애견·애묘시장으로 확장을 추진 중이다. 남원 허브밸리를 활용한 ▲포레세(대표, 고현지)는 민감성 피부에 위한 저자극 수분크림을 개발하여 E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입점과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미래기술혁신센터는 도와 민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지원 정책 지원 의지가 결합한 결과물로 앞으로의 참여 기업의 실적이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뤄져 전북 경제 성장의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이달의 으뜸 도정상' 수여

공항하천과·탄소융복합과 최우수·3개 우수부서 선정

전북도는 지난 10월에서 11월까지 업무성과가 탁월해 전북도의 위상을 빛낸 5개 부서를 선정하고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10대 핵심프로젝트, 공약사업 등 각종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한 부서에게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도 불구하고 전북 도정의 눈부신 성과를 보인 12개 부서가 경합을 벌여 최종 5개 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공항하천과, 탄소융복합과 2개 부서, 우수부서에는 대도약기획단, 세정과, 홍보기획과 등 3개 부서가 선정됐다. 공항하천과는 코로나19로 중단된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 운항 재개에 성공해 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공항하천과는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운항 중단으로 인한 도민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제주항공, 진에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운항 재개를 도모해왔다. 각고의 노력 끝에 중단 6개월여 만에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운항 재개 성과를 만들어냈다. 도민 항공 이용 편의 제공과 군산공항 활성화에 따른 항공 수요 증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당 위상을 확보했다. 탄소융복합과는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 성공했다. 전북에서 시작한 탄소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 컨트롤 타워 설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유치해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서 기반을 조성했다. 이로써 탄소산업을 100년 먹거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할 성장 동력 마련하게 됐다. 이달의 으뜸 도정상 선정 부서는 격려금과 최우수 부서 가점과 개인 가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유호상 기자

-text> 文대통령, 공수처법 공포안 재가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을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재가했다. 부칙상 공수처법은 이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공포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절차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천위원 7명 중 2명의 추천 문인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짐으로써,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법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주민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신설된다. /뉴시스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김제기나노요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15일 소방관들이 확진 관정을 받은 어르신의 격리시설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 '제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전북도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2만건, 68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작년보다 14억원(2.1%) 증가했으며,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만 대(2.2%) 늘어난 것이 증가 사유로 분석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2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9.3%를 차지했으며, 화물자동차 3억원, 승합 등 기타차

종차 2억원이 부과됐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대한 것으로,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한 경차, 이륜차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운행 연한(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산불방지 대책 빛났다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면적 대비 46% 감소

올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산불방지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면적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북도는 15일 '2020년 산불조심 기간' 운영을 종료하고, 도내 258개소의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산불 비상근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도내에는 총 22건의 산불로 2.94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건담 0.13ha의 피해로 이는 최근 10년간 건담 산불발생 피해면적 0.19ha와 비교해서 46%가 감소한 수치이다. 올해 전국의 산불 발생 591건, 피해면적 2,914ha(건담 피해면적 4.93ha)와 비교해볼 때, 도내 산불 발생 건수는 3.72%, 피해면적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전북도의 산불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과 차단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도내 2,778개 마을이 참여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 서약을 비롯해 주요 등산로 일원에서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

및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입산자에 의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800명을 전진 배치하고, 폐쇄 등산로 82개 노선 441km,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9만ha 등 산불취약지의 입산자 출입을 차단했다. 아울러, 감시 사각지대에 설치한 80대의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전면 가동하고,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3대를 도내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하는 등 사전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 이 외에도 산불예방진화대 700명으로 산불 인화물질 제거반을 구성해 산림연접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파쇄와 영농쓰레기 수거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해 산불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도 했다. 전북도는 내년 역시 기후 온난화에 따른 가뭄과 이상기온 등으로 동시다발 대형산불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모집 **현영**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편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의를
- 스피치 컨설턴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